



2024년 5월 12일(제1193호) 주님 승진 대축일(홍보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일상을 통한 선교”

오늘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복음 선포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막막함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등에 업으면 업은 사람은 등에 업힌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던 사도들이 이제는 그분의 손끝만 보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을 따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을 살아냅니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그분의 말씀을 묵묵히 살아냅니다.

예수님을 알림에 있어 사도들은 기적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이용하지 않았지요. 대신 어느 상황에서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기적도 뒤따랐던 것이고요. 이러한 발자취를 통해 사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뱀의 독을 삼켜도 죽지 않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일상적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리는 결단이고, 마침내 살아내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결단과 용기로 예수님의 손끝을 따라가니 점점 빛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자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도들의 결단과 용기가 사람들 눈에는 마냥 무모

한 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로 주변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을 보며 사람들은 매혹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리였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이후 앞서가는 사도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표징이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이 세대에 표징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이라는 신기한 일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듯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에게 대한 관심은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이끌렸던 유대인들도 그때뿐이었지요.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천 년 전 사도들이 그랬듯,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체의 사용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끝에 결국 우리가 보여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일상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박동진(안드레이) 신부  
해병중앙(해병대사령부) 성당 주임

- |         |  |
|---------|--|
| 제 1 특 시 | 사도 1,1-11  |
| 회 탐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 제 2 특 시 | 에페 1,17-23   |
| 복음 본보송  | ◎ 알렐루야.<br>○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br>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 복 음     | 마르 16,15-20  |
| 영 성 제 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저에게 직접 상관없고 주재님은 사함을 신부님께 서한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의 직분을 넘는 짓으로 보이고, 더구나 비방을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짓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신부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득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부님께서도 이런 것을 아셔야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베르뇌 주교님의 선임자이신 페레올 고(高) 주교님이 생존하셨을 때, 신자들 사이에 말이 많아 주교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페레올 주교님께서 당신을 보좌하는 복사들을 잘못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사들은 크게 비난받을 짓을 많이 범하고서도 양반임을 내세워 항상 너무 거만한 행세만 부리므로 모든 교우들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유독 페레올 주교님께서서는 그들만 사랑하고 신임하시어 그들하고만 모든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를 그대로 두면 주교님께도 해로울 것이고 일반 교우들에게도 손해가 되겠기에, 주교님께 여러 번 서한도 올리고 직접 면담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시라고 진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는 주교님께 큰 꾸중만 들었고, 저 복사들로부터는 큰 미움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 선종하시자 다시 신자들 사이에서 저들을 추방하자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얼마 동안 매스트르 신부님한테 붙어 있다가 공개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더욱 큰 악표를 신자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우 행세도 못합니다.

우리 조선에서 양반이라는 자들에 대한 여론을 말하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양반 자신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양반 계급의 독선, 오만, 횡포, 부도덕이 모든 (사회) 악의 근원이고 (백성들의) 온갖 비참함의 원인임을 시인하며 지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들과 함께**

나도 별 하나 준비해	그들과 함께
풍선 가득 달아	님 곁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작게 빛나고 싶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주님 부활과 승천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인 400년경, 얇은 상아에 부조로 제작된 이 작품은 고전 시대 예술에서 상아에 제작된 작품 중 최고의 품질로 평가된다.

작품 하단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비어있는 무덤과 이를 세 명의 여인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보이고, 천사 뒤로 보이는 건물 같은 것의 왼쪽에 창을 든 군인과 오른쪽에는 잠들어 있는 군인이 보인다.

작품 상단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제자들 중 한 명은 눈이 부신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 하늘의 구름 속 하느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인도하고 계신다. 섬세하게 부조로 조각된 인물 표현이 상아라는 재질에 떨어지는 빛과 결합하여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직지 미상, 400년경 제작

상아, 18.7cm 높이(두께 6mm) / 비버리아 국립 미술관, 독일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이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능민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에페 4,13)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승천 대축일: 예상대 박사용 신부

◆ 교구장 동정

- 지성대(미사일방어2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12일(주일)

- 통일기원 기도의 날

때·곳: 5월 18일(토) 10:00, 22사단 통일전망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